일본의 양계소식

운 병선
한경대 전화공학돌봄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능력학기사

산란 계

2/4분기 사료가격 톤당 2138부(당 28,44원) 인상

농협과 11개 주요 백사료사료회사는 3월 14일부터 2011년 들어 두 번째로 사료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원료인 옥수수와 대두粕 가격 등이 상승하여, 가격션도사인 농협의 인상폭은 전국 진족평균 1,800원(당 2,300~2,400원으로 11개사의 가중평균가격은 2,138원이다.

그러나 농협은 동북부지방의 지진영향을 고려하여 가격인상은 1개월의 농협과 5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협과 백사료사의 인상 폭에 차이가 있는 것은 축종별 백사료생산량의 차이가 있고 정부의 최저 수입의무장의 뜻이 사료용으로 농협사료에서 많이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백사료사료가격이 직전 1년간의 평균가격을 상회한 경우에 발생하는 통상사료가격으로부터 약 4,750원 이 보전되어므로, 농가의 실질부담은 약 700원으로 경감된다. 옥수수나 대두粕의 백사료가 높은 양계 사료의 인상폭은 진축종의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의 진축 평균백사료사료의 한국가격은 1월말일 환율기준(1엔/13.3원) 톤당 200,005원(당 200,005원)이다(계명신문 발췌).

계란생산자 경영안정책책

농협수산은 3월 16일『계란생산자 경영안정책책』의 사업실시주체로(日本계란협회)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2011년도 예산으로 실시예정인 사업자 공모가 있었으며 일본계란협회는 1월 중 5 개 국익으로 사업내용 설명회 계획을 새워 준비해 왔다.

이 사업은 가격차보전사업과 성계도대·계사공실 연장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농림수산 성에서 정리한 실시요강에 의해, 참가 생산자는 산란체와 일률을 상시 100% 이상 수용하고, 계란을 판매하고 있는 생산자(6개의 생산자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 포함)이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

가격차보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정인계란가격과 성계도대·계사공실연장사업시행에 기준이 되는 안정기준가격은 매사업연도개시전에 국립수산 생산국가정부가 정한다. 가격보전사업은 전년계란 (당) 보전기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고 정부는 그 정비의 1/4 이내(예산 범위내)를 보조한다.

성계도대·계사공실연장사업은 매년 「표준가격배가 격」이 안정기준가격을 상회하는 날의 30일 이전부터 상회하는 날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에 특별한 대규모 도계장으로 출하하고, 60일 이상 계사 공실기간으로 두고 그 이후 병아리와 계 작업하는 경우에 1수당 200원(당) 이내(10만수 이상의 대규모는 1수당 150원 이내)의 장려금을 교부한다. 그러나 규모 확대에 따른 시설비용에 농림수산 성의「가능농업 만들기 교부금등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생산자가 그 기간(당해 연도)은 장려금이 교부되지 않는다. 도계장은 개별에 중당되는 1수당 17.4 엔 이내의 장려금을 지불한다(계명신문 발췌).
육 계

동일본대지진으로 양계에도 사료, 연료부족 등 피해 심각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양계관련 산업으로의 피해가 커져 재란. 계류의 생산, 유통체계의 영향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동북. 동일본을 탐진 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이와테(岩手)의 오호나도시(大船渡市)의 육계도계장과 런쿠젠다카마치(陸前高田市)의 식품공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佐野마네키(小野秀次) 사장은, 공장은 쓰나미 피해로 사용할 수 없어 생산기능을 잃지 정지할 수밖에 없으나, 재간장, 부확장, 생산농장의 피해는 정비하며 복구를 결정하고 전체가 하나 가 되어 노력하려고 한다. 그리고 재간장은 정식하였다.

양계의 재간 산지인 동북의 육계나 산간계의 시설 및 기타 피해상황은 쓰나미로 유실된 종계장, 지진으로 인한 붕괴, 반파된 계시에 대한 보고는 비교적 적지만, 그 중에서도 혼란한 것은 단수와 사료공급 중단. 정전과 연료(휘발유나 경유)부족이 문제가이다. 사료는 센 다이(仙台)를 비롯한 5개 지역의 사료공장이 피해를 받아 복구에 시간이 걸리고 도로의 단절, 취발유 부족으로 농장으로 사료를 운반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나 3월 15일 경찰청이 사료 공급차량의 긴급운행 차량확보사항을 교부하기로 하였지만 부분의 농장에서는 사료재고가 2~3일 정도 밖에 없어, 피해를 받은 공장 외외부사료사료가 운송되어도 사료부족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간계 농장에서는 허전되지 않아 탐을 도계장으로 출하한다는 보고도 있고, 육계에서도 농장으로부터 「병아리」를 받을 수 없다(임식취소나 「임식 가능한 사료가 없는 단계에서 앞으로 초생추의 임식일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는 농장도 있다.

정전에 의한 전력부족, 연료부족 문제는 농장뿐만 아니라 도계장, ERP센터, 액랜거장 등에서도 심각한 상태이다. 지진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시설에서도 전기나 연료가 없으면 가동되지 못하고, 계란 제조 제품을 소비자에 운반할 수 없다. 소비자인 수도권에서도 공급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해 공급부족에 의한 계란과 계류의 도개가격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담고기의 장기적인 소비에 의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2010년도 일본산 육식수요장개선대책사업으로 소비자의 일본산 닭고기 구매에 관한 조사결과 4,131명(여자 3,298명, 남자 823명)결과를 일본계육(食鳥)협회에서 발표하였다. 성별 구입비율은 여자 가 남자보다 4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38.5%, 40대 27.5%, 50대 12.7%, 60대 14.6%였다. 닭고기 구입 비율은 주 2회 36.3%, 주 3회 이상 18.5%로 절반이가 주 2회 이상, 주 1회 이상 구입자가 90%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구입 장소는 96%가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닭고기 구입여부는 (1) 가격 저렴(62%), (2) 자신이 좋아해서(60%), (3) 요리가 쉬워서(59%)라고 답은 총이 대다수였다. 반면 노년층은 고단백, 저칼로리, 안전, 안심을 이유로 구입한다고 하였다. 1회 구입량은 200~500g 71%, 500~1kg 19%이었고, 특히 40대로 중고생이 있는 가정에서 구입량이 많았다. 구입비율은 난적달리 91%, 가습고기 73%, 안심 38%였다(일본식조협회 발췌).